

뉴스

5

기후붕괴, 지옥문 열까 군(軍)관점서 본 기후변화

출판문화원 신간 리뷰

강나윤 기자 nadori814@kn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이 『기후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를 출간했다. 『기후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는 국내 최초로 군대라는 독특한 시각에서 기후변화를 다룬 도서다. 저자인 미국의 안보 전문가 마이클 클레이어는 책을 통해 ‘기후변화가 군의 활동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또한 자연재해, 식량과 물 고갈, 국제 분쟁 등 전 세계에 끼칠 파급력과 대처법을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저자는 ‘펜타곤의 인류 멸종 시나리오’라는 과격적인 부제목을 내세

웠다. 책 서문에서는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향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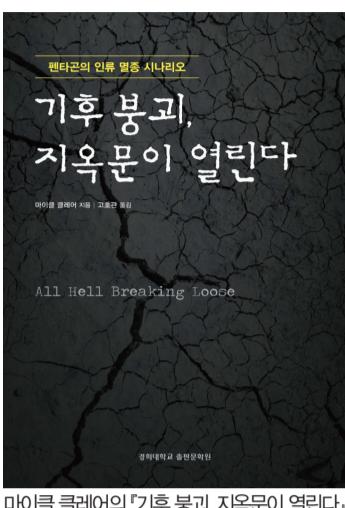
“기후변화는 단순히 전염병,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해수면 상승은 많은 도시를 위협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인종적으로 분열된 국가에 갈등을 부추긴다. 이로 인한 ‘기후 난민’은 국제적인 난제가 되기도 한다.”

책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와 정부 문서를 참조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대국 간의 이해 충돌’과 ‘국제관계 변화 양상’에 주목했다. 군(軍)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다룬 만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미국이 기울인

노력과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위기를 극복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군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도 주목했다. ‘세계의 주요 기관 중에서 미국방부만큼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기관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펜타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관련 정책을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기후변화 정책을 밀고 나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방부는 기후변화가 핵 위기나 테러보다 국가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군은 대체연료 사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해 자급력을 높인 바 있다. 탄소 기반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외부 의존도를 줄였다. 또



マイ클 클레이어의 『기후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

한 군사 기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비전투용 수송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며 기후 친화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다.

이 책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국방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기관의 대처 방향 수립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책에서는 민간 기관 및 주변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미군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해법을 알려준다. 나아가 시민사회, 환경 정책 관련자 등 환경과 국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은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전 미 공군 대장 론 키이즈는 『기후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를 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미군의 실용적 접근법에서 핵심 요소를 짚어낸 책”이라고 평했다. 또 미국 국제환경운동가 빌 맥 키벤은 “미래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는 것이 좋다”는 추천사를 남겼다.

배구부 U-리그서 종합 3위

홍지민 기자 jimin4249@knu.ac.kr

우리학교 배구부가 지난 17일 고성에서 열린 KUSF 남자대학배구 U-리그에서 성균관대학교에 세트 점수 1-3(21:25, 25:21, 21:25, 17:25)으로 패하며 리그를 마무리했다.

1세트는 초반 서브 범실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서브리시브는 좋았으나 상대편의 스파이크, 스매시 등을 받아내는 디그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 중반, 이수민(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의 속공과 김인균(스포츠지도학 2018) 선수의 공격, 국모세(스포츠지도학 2018)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로 점수 차가 15:18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성균관대의 공격 성공으로 다시 점수 차가 벌어지며 분위기가 기울었고 우리 측 서브 범실로 1세트가 마무리됐다.

2세트는 박예찬(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의 블로킹 성공으로 포문을 열었다. 1세트와 다르게 범실을 줄이고 꾸준히 공격을 성공하며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유하(스포츠지도학 2020), 김인균, 신승훈(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계속해서 리드를 잡았다. 이수민 선수가 블로킹을



우리학교 배구부가 KUSF 남자대학배구 U-리그에서 성균관대학교에 패하며 리그를 마무리했다.

(사진=한국대학배구연맹 제공)

성공하며 24:19로 세트포인트를 가져왔고 상대측의 서브 범실로 점수를 따내며 2세트를 가져왔다.

3세트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진행됐다. 세트 초반, 이수민 선수가 블로킹과 뒤이은 공격 성공으로 힘을 보탰다. 성균관대의 계속되는 공격 성공으로 9:11까지 점수가 벌어졌지만, 김인균 선수의 공격과 서브 에이스로 동점을 가져왔다. 이후 좀처럼 승부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듯했으나 경기 후반 우리 측 서브리시브가 흔들리고, 공격은 블로킹에 막혀 21:25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4세트는 아쉬운 점수차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세트 초반에는 국

발했다. 그러나 경기 중반 이후 상대측 공격을 연속해 허용하면서 15:23까지 점수 차가 났다. 이후 흐름을 빼앗아 오지 못하고 세트 스코어를 내주면서 경기가 종료됐다.

우리학교 배구부는 이번 대회에서 승점 12점으로 종합 3위에 올랐다. 리그 초반 A조에서 4연승으로 조 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진출에 실패했던 4강까지 올랐다.

배구부 김찬호 감독은 성균관대 와의 준결승전을 리그에서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김 감독은 “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한 단계 도약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며 “특히 3, 4학년들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신승훈 선수의 재능을 엿볼 수 있었고 김영준,

이수민 선수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리그에 대한 소감을 묻자 김 감독은 “코로나19로 게임 수가 줄어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게임 수가 줄면서 선수들의 부상이나 체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감독은 “팀 우승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상 없이 프로에 가서 경기력을 뽐낼 수 있게끔 하고 싶다”며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表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서브와 블로킹 강화가 국제적인 흐름인데 이에 맞춰 신장이 좋은 선수를 선발하려 한다”며 “프로나 국제 경기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호관대 관광제 개최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nu.ac.kr

호텔관광대학(호관대)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광제 ‘홀림피’를 진행한다.

관광제는 호관대 축제로 매년 개최되어 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는 호관대 학생회가 학생들의 문화생활 공백을 메우고자 관광제 진행을 결정했다.

관광제 테마는 올림픽과 호관대를 합성한 ‘홀림피(Holympics)’이다. 호관대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순위권에 들게 되면 메달 및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관광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은 2종류의 방탈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장기자랑, 추리 게임, 퀴즈, 학과 콜센터, 초청 강연 등으로 구성된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호관대 동아리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호관대 학생회는 “이번 관광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올림피에 참가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